

## 2025년 5월 18일 “(가정의 달) 죄책감과 고백과 회복”(요일 1:5-10)

가족 안에서 죄책감이 끼치는 영향, 또 그것을 해소하는 길과 그에 따르는 축복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가족 관계 속의 죄책감

기독교 신앙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오히려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롬 5:12)). 이는 죄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가 더 분명히 깨달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옳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태도로서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과 감사를 드린다면, 신앙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죄와 은혜의 주제는 가족이라는 친밀한 공동체 속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에 말과 행동이 무례하거나 가볍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실수들이 죄책감으로 남아 쌓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꼭꼭 속았수다’(6화)의 애순이와 관식이 부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 금명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두 아들을 집에 두고 급히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은명이와 막내 동명이도 각각 밖으로 나섭니다. 결국 막내 동명이는 그 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말을 잃습니다. 모두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 막내가 죽었다고 느끼며 죄책감에 갇힙니다. 금명이는 자전거를 타지만 앉았어도, 은명이는 막내를 혼자 두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평소 방파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빠는 그날 일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각자의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죄책감이 깊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2] 죄책감의 해독제는 고백

죄책감은 고백하지 않으면 내면을 굵게 하고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죄책감으로 인해 갖게 되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는 방어와 냉소 또는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애순의 가족처럼 자신의 죄책감을 토로하면, 공동의 아픔을 품고 다시 결속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해독제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며, 서로가 사귄과 교제를 누리는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 [3] 가정 안에서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원리는 모두의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자녀를 사랑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준 말, 배우자를 돕고 싶었지만 부담 준 행동, 또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책감을 품은 채 살아가면, 어느 순간 마음은 굳어지고 관계는 식어갑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새로운 사임과 회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용기 있는 고백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출발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사임을 경험하고 서로의 진가를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임을 회복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나는 가족 안에서 느꼈던 죄책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 왔나요?
2. 우리 가정(또는 공동체) 안에 죄책감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